

“광주형 일자리 우선 추진해야”

시민 28.7%, 1위로 꼽아... 도시철도 건설2호선·남도피아 조성順 공영주차·사회복지시설·공원·유원지 등 공공시설 확충 목소리

광주시민들은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조성'(28.7%)을 꼽았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14.6%),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12.0%),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10.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4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광주시내 표본가구 4917가구 성인 15세 이상 9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는 '기업 등의 적극적인 노력'(54.3%), '행·재정적인 지원'(33.5%), '노조의 참여'(7.1%), '시민단체 지원 협조'(4.7%) 등을 제시해 시민들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재정적 지원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패가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37.7%), '미래형자동차 생산도시 및 부품단지 조성'(18.9%),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1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선언'(8.6%) 등 순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생산도시 및 부품단지 조성 사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기업의 R&D 및 인력 양성 지원'(25.9%), '교육훈련 지원'(17.8%), '청년인턴제 확대'(16.7%), '구직 활동비 지원'(15.3%), '청년 장기근속 유도 지원'(12.8%) 등을 거론했다.

시민들은 복지분야인 생활여건, 의료보건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 등은 2년 전보다 '보통(변화없음)'(60%), '약간 좋아졌음'(29%)으로 평가해 광주시의 복지정책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의 거주지 환경분야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에 대한 체감도는 '보통'(44.8%), '좋다(만족)'(36%) 등이었다.

이는 1년 전 '보통'(49.2%), '좋다(만족)'(42.5%)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2년 전에는 '사회복지시설'(23.2%), '공영주차시설'(18.7%), '공원·유원지'(16.8%), '보건의료시설'(16.2%) 등 순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공영주차시설'(25.2%), '사회복지시설'(21%), '공원·유원지'(16.5%), '보건의료시설'(13.3%) 순이었다.

이 결과는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면서 공영주차시설 확충을 바라는 시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2년 전에는 '맞벌이가구 양육지원'(28.9%), '노인돌봄서비스'(28%), '저소득 아동 지원'(13.7%), '산모·신생아 돌봄'(8%) 등 순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맞벌이가구 양육지원'(25.2%), '노인돌봄서비스'(21%), '저소득 아동 지원'(16.5%), '산모·신생아 돌봄'(13.3%) 순으로 응답했다.

맞벌이가구의 양육지원(2년 전 대비·3.7%)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았다.

19세 이상 시민의 노후준비 방법은 2년 전에는 '국민연금'(38%),

'예금·저축성 보험'(35.3%), '공적·사적연금'(17.7%)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연금'(47.1%), '예금·저축성보험'(30.1%), '공적·사적연금'(15.5%) 순으로 나타나 노후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시민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2년 전 '본인 및 배우자'(59.2%), '자녀'(27%),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14.8%)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의존도(2년 전 대비·9.0%)가 소폭 낮아졌다.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은 2년 전에는 'TV·VOD 시청'(39.6%), '휴식·가사'(24%), '여행'(16.5%) 순이었으며, 이번에도 'TV·VOD 시청'(32.6%), '휴식·가사'(21.3%), '여행'(11.5%)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8.5%), '시간 부족'(24.8%), '건강문제'(7.3%) 등이 꼽혔다.

이는 2년 전 '경제적 부담'(53.1%), '시간부족'(21.7%), '교통 불편'(5.0%)과 비슷해 여전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관광'(82.3%), '가족·친지방문'(15.7%), '업무'(10.0%)로 나타나 대부분 관광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관광(78%)', '가족·친지방문'(9%), '업무'(8.6%) 순이었다.

/한동주 기자



이면도로 제설작업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지난 13일 봉선2동 무등파크1차 옆 이면도로에서 얼음을 제거하고 있다. 남구는 폭설로 그늘진 이면도로에 결빙이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낙상 예방 및 차량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이날 포크레인 2대와 직원들을 투입, 25곳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펼쳤다. /남구청 제공

동구 이면도로 제빙작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20명 인원·굴삭기 4대·살포기 2대 투입 총력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강설로 이면도로가 결빙된 가운데 동구 동구 중앙비를 동원해 이면도로 제빙작업에 나서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주말 관내 이면도로

제빙구역 현장조사를 거쳐 20여 명의 인원과 굴삭기 4대, 살포기 2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급남로, 중앙로, 제봉로 등 골목길과 이면도로 제빙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구는 이후 13개 동을 순회하며

이면도로 결빙지역의 제설·제빙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갑기 기자

북구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지원 팔걸어

내달 27일까지 공모...주민 소득증대·관광활성화 기여

광주시 북구가 내달 27일까지 무등산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생태·문화·역사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2018년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등산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무등산권 마을공동체 조직체와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문화단체로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내달 27일까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북구청 문화관광과(062-410-6624)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무등산권 자연마을의 특색 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 창출사업이며, 오는 3월 중순 자체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마을별 2,700만원 이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 북구는 '2017년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석곡동 충효·금곡·평촌마을 등 5개 마을을 지원했다. 먼저 무등산국립공원이 인접한 충효마을은 마을 내 농소화를 식재하여 충효와 선비의 기개를 품은 농소마을을 조성하고, 금곡마을에서는 마을 주차장 내 활쏘기 장을 설치해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두물길 습터가 조성된 평촌마을은 마을 입구에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재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대대로 이어온 공동 샘 복원에 나섰다. 등촌·신촌마을은 마을 앞 도로변에 바람개비 설치 사업을 펼쳤다.

한편 북구는 오는 19일 광주호수 생태원지구센터에서 마을대표 및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무등산권 마을관광협의회'를 개최, 2017년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성과보고 및 무등산권 관광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무등산권이 호남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갑기 기자

전라도 천년 대표나무에 '해남 느티나무' 선정

전남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도를 대표할 천년나무로 해남 대흥사 소재 '느티나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에서 보호관리 중인 보호수 4051그루, 천연기념물 24그루, 기념물 28그루 등 총 4103그루를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연구진과 수목 전문가 등이 심사를 통해 강진 푸조나무, 해남 느티나무, 진도 비자나무 등 3그루를 전라도 천년

을 대표할 예비나무로 뽑았다.

이어 이 3그루에 대해 지난 12월 26일까지 8일간 전라남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남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았다.

여기에 '해남 느티나무'는 산림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및 도청 직원 설문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라도 천년 대표나무로 선정됐다.

도민들은 SNS 등에 보내준 선정 사유로 "천년 동안 이어온 강한 생명력으로 남도의 애환과 역사를 간직했으며, 굵고 바른 줄기는 미래 전남의 힘찬 발전을 상징하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내용이 많았다. 봉진동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천년나무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도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마을 주변의 당산목들도 정감 있는 향토자원으로 관리해 전남의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효영 기자

건설 근로자 모집

가족처럼 같이 일하실 분야별 근로자를 모집 합니다.

※ **건설 분야(전화 및 방문접수)**
미장/조적/철근/내 외장 목수/설비/용접/타일/건물 청소/조립식판넬/리모델링/조경/예초기 가능자 등 (기공조공, 업무보조인력, 여성근로자 등)
※ 시공 자문·시공 전문: 철거/인테리어/집수리 /지하수개발 (광주, 전남, 전북 출장 상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님의 현장에 알맞는 맞춤형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님의 전화 한 통화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등록번호 : 2015-3620122014-5-000010호

우리들 근로자 대기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88(두암동)
대표전화 : ☎062-512-3270

알립니다

지역 주재기자 모집

1. 모집분야 : 고흥·함평군
2.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3.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사진
4. 자격요건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5. 접수마감 : 2018년 1월 31일까지
6. 접수처 : 광주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전화 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062-363-8800, FAX 062-362-0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매일신문사

우리집 정수기 필터

필터관리 직접

우리집 정수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 50% ~ 최저 3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필터 하나에 1만원!!

(단, 기능성 알칼리 이온수기 필터 제외, 10%)

☑모든정수기 : 웅진, 청호, 아쿠아, 지엠, 대우, 한일, 코오롱 등
☑이온수기 : 바이온텍, 동양, 삼덕오존알카 등

우리집 정수기 좋은물! 필터관리가 소중합니다.

- 1단계 전처리 침전필터(Sediment Pre-filter)
녹물, 흙, 모래, 오염물질 제거. 3개월 사용.
- 2단계 전처리 카본필터(Pre-Carbon Filter)
염소, 칼슘물질제거, 냄새제거. 6개월 사용.
- 3단계 역삼투압필터(Reverse Osmosis Filter)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5~24개월 사용.
중공사막필터(Ultra Filtration Filter)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년 사용.
- 4단계 포스트카본(Post Carbon)
전류 유해물질 제거, 물맛을 좋게한다. 9개월 사용

정수기필터 백화점 광주전남지사
주문및상담 062) 361-5456, 011-390-2229